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강신재의 초기단편을 중심으로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강신재의 초기단편을 중심으로

김복순

국문초록

'역사 속 타자'였던 여성의 특수한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였다. '주체'와 '타자', 지식인 엘리트와 민중, 남성과 여성의 역사인식은 다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총체적 인식의 부족, 당대성의 결여 등으로 타매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인식방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역사해석 내지 인식의 주체는 국가 내지 민족이었으며, 대체로 남성과 동일시되어 왔다. 한국전쟁에 관한 한 민중, 여성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로지 국가, 반공의 관점만 있다.

강신재는 전쟁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남성 작가의 소설이 통상 사건사, 정치사 중심의 거대사적 접근 및 인식을 드러낸다면, 여성소설은 대개 개인-가족-일상 중심이다.

민중 여성 계열에서 전쟁은 '이웃사람들이 피난 가는 소리' '쌀배급'으로 인식되었고, 삶의 비극성을 표면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한다. 실존의식 계열에서는 전쟁을 매개로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결국 절대고독자라는 실존의식으로 귀결되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은 역사 속 타자의 인식방법을 강조해 드러냄으로써 비판성을 획득하며, 여성서사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 준다.

여성의 시간인식은 근대의 시간관인 직선적 시간관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개인·가족·일상 중심의 비사건적, 비직선적 시간이다.

이러한 차이는 낸시 초도로우와 캐롤 길리건이 말한 '관계적 자아'와, 여성의 '인식방법' (women's way of knowing, women's way of seeing), 남녀 대화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은 침묵과 배제의 기억의 정치학을 잘 보여주며, 초기 단편에서 1960년대의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에 이어지는 과정은 서술자의 시각, 등장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반공주의 시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정착했음을 반증해 준다. 이러한 변모는 남한의 공식 역사에서 기억의 정치학이 작동되는 전개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설과 사회의 상동성(homology)이다.

- 핵심어 : 페미니스트 인식론, 여성의 전쟁인식, 여성의 역사인식, 여성의 시간, 기억의 정치학, 침묵·배제의 원리, 관계적 자아, 반공규율사회

1.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아날학과 방법론의 유효성

젠더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그것은 역사를 갖고 있다. 서양과 동양의 개념이 권력관계로 귀결되듯, 여성의 역사도 결국 젠더 개념을 통해 권력관계로 연결된다. 누가 어떤 수단을 통해 젠더를 규정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하였는가? 여성이 제거되었던 역사에 여성이 다시 포용된다면, 남성 중심적인 담론 속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체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의 형상화 방식에의 동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차이를 담으려 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는 사회와 인간(여성이건 남성이건)의 만남의 방식이 남성작가의 소설과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의 세계인식 과정, 역사이해 방식, 인간이해 방식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남성과 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역사 속 타자'였던 여성의 특수한

1) 여성의 세계인식과정이 남성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Belenky Clinchy Goldberger Tarule, *Women's Way of Knowing*, Basic Books, 1997을, 커뮤니케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다른 역사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주체'와 '타자', 지식인 엘리트와 민중, 남성과 여성의 역사인식, 사회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60년대 일본 민중사학의 출발점이었고,²⁾ '장기지속 이론'에 기댄 브로델의 일상생활사 및 진즈 부르그의 미시사(민중생활론) 등 '아날학파'의 새로운 역사연구방법론도 이에 토대하고 있다.³⁾ 타자, 민중, 여성의 역사인식은 총체적 인식의 부족, 당대성의 결여 등으로 타매, 폄하, 비하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인식방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역사 속 타자 중 가장 큰 범주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세계인식 과정과 역사재구성 방식 등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작가의 소설은 남성작가의 소설과 다른 사회인식 및 역사 재구성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작가의 소설들은 시간관, 역사관, 역사의식, 전쟁인식, 서사형식적 원리 등에서 남성작가의 소설과 다른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남성들이 직조해내는 서사문법과 차별성을 생산하는 지점이 된다.⁴⁾

여성작가의 소설은 역사를 인식하고 전유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추동하는 서사전략, 그 결과인 여성서사시학 등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연구가 여성의 본질과 경험을 도외시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고유한 삶과 경험도 구성요인

이선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Deborah Tannen,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William Morrow, 1990, 및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3를 참조.

- 2) 우리의 역사학이 마르크스주의 사학을 표방할 수 없어 민중사학의 이름으로 마르크스주의 사학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일본의 민중사학은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대한 반성으로서 민중의식사를 연구하였다.

歴史學研究會 編, 『歴史學における方法的轉回』, 青木書店, 2002. 참조

- 3) 한스 위르겐 게르츠, 최대회 옮김,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3 및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참고
알트 퀴트케 외, 이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4) 필자는 이와 같은 시각 하에, 일차적으로 여성역사소설의 영웅 형상화 방식이 남성작가의 영웅형상화 방식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줄고, 「여성역사소설로서의 『토지』와 여성영웅성」,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으로 정립하여 객관성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자칫 이분법적 사고 또는 환원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받기 쉽다. 그러나 여성의 텍스트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젠더화된 담론의 전통을 끌어들이면서도 새롭게 전유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일은 페미니즘 연구가 과학이고자 하는 한 거부될 수도,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남성담론, 남근주의 비평 중심의 근대미학에 대한 비판 및 도전, 거부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타자화된 사람들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시도는 타자화된 사람들을 역사 서술의 전면에 위치시키며, 기존의 엘리트 중심, 남성중심의 역사서술과 다른 서사문법을 구가케 한다. 물론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중과 지식인 엘리트, 여성과 남성, 타자와 주체 양자가 서로를 상호매개하여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자화는 후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의해서도 역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면서, 주체의 관점과 타자의 관점을 대자적으로 상호매개한 '우리'의 관점(Für Uns)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은 '중립성' '객관성'의 내포가 마련된 바 없고, 그동안 역사 속 타자화의 가장 큰 희생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역사 다시보기', '문학 다시읽기'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매개과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인-서양-남성에 의해 타자로 규정된 유색인-동양, 그 중에서도 식민지화의 길을 벗어나자마자 세계 열강들에 포위되어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른 바 있는 한국에서 역사 속 타자인 '여성' 작가의 작품을 검토해 보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다. 이는 오리엔탈리즘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포섭되

5)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이러한 관계를 잘 확인시켜 준다. 서양에 의한 동양의 타자화가 오리엔탈리즘이라면, 동양에 의한 서양의 타자화는 옥시덴탈리즘이다. 우리는 '세계 속 타자'로서 오리엔탈리즘만 강조하고 있지만, 동전의 다른 측면인 옥시덴탈리즘의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한다.

어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현 단계의 세계사적 발전과정에서 '지금-여기-나'의 탈식민적 노력이기도 하다.

2. 여성의 인식방법: '매개' 기능, '비' 사건중심', 일상 중심

여성에게 한국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가족의 며느리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한 개인으로서, 한국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였을까. 흔히 동족상잔으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남성과 여성, 민중과 정치지배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지 않다.⁶⁾ 종래의 역사해석 내지 인식의 주체는 국가 내지 민족이었으며, 이들 민족과 국가는 대체로 남성과 동일시되어 왔다. 한국전쟁에 관한 여러 방대한 연구성과 속에서 전쟁 경험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여성의 경험은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한 민중, 여성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로지 국가의 관점, 반공의 관점만 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민중과 여성의 전쟁 체험과 기억은 '예속된 삶'으로서, 그것은 지배적 삶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다.⁷⁾ 지식권력은 공식적이지 않은 경험과 기억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여타의 해석을 불법화하고

6) 대표적으로 김동춘은 시인 모운숙과 역사학자 김성철의 역사인식 및 전쟁인식이 상당히 상이함을 밝힌 바 있다. 모운숙은 남한의 공식적 전쟁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로서 인민군 치하의 서울과 남한을 '암흑천지' 혹은 '지옥'으로 묘사하면서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를 견지하는 반면, 역사학자 김성철은 한국전쟁이 '미소 간 냉전적 대립의 연장'이고 '한반도는 그 희생양'이라고 봄으로써 민족적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p.25-33

뿐만 아니라 윤택림은 빨갱이 마을로 치부되는 충남 예산군 시양리의 좌익지도자 아 내들의 구술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전쟁 또는 역사인식이 남한 공식 역사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역사비평사, 2003, p.223-249

7)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7. 1장, 2장 참조

블은시하며 탄압한다. 전쟁경험은 승리하는 측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하는 한에서만 공식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공식화된 기억에는 특정 권력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전 국민의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이데올로기 효과'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으며, " '압제하는 압' 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전유한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들의 전쟁 경험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또 다른 역사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여성의 전쟁인식, 역사해석 방법을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공식적 역사에서 침묵당하고 부정당하고 부인되고 억압당한 또 다른 역사의식이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전쟁에서 여성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경험에 토대한 하나의 새로운 역사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권력에 의해 여성의 경험과 그에 바탕한 여성의 인식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억압당해 왔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강신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49년 등단하여 1950년대에 줄곧 왕성한 창작활동을 한다. 강신재에 대한 기존의 평은 '비누냄새의 작가', '반산문적인 시적 감흥' (이상 천이두), '감각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 (염무웅) '문제인식, 상황인식에 있어 감각적 인식의 한계' (김현), '작가라는 의견이 보류' 될 정도의 '당대성이 탈락된다' (고은, 정규웅, 김현, 조연현 등)는 것이었다. 감각성과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여성작가보다도 그 긍정성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던 작가라 할 수 있다.

강신재에 대한 위의 부정적 평가는 남근주의 비평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평자들이 강신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도 '가장 여류다운 여류' 라고 보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는 강신재 소설이 남근주의 비평 안목으로 보아 통상 '여성적' 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 때 '여류'의 내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내포 설정에 젠더정치학이 투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여류답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식방법의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김동환의 지적처럼 1950년대 작가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화'는 현실인식의 한 형태이며, 표현방법일 뿐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여성의 세계인식방법의 차이, 그에 따른 형상화 방식으로 차이로 이해하면서 그 전모를 밝혀 보고자 한다.

1950년대 남성작가의 소설은 흔히 전쟁의 상흔에 빠져 과도한 피해의식에 짓눌린 나머지 개성있는 주체의식이 발현되지 못하였다거나, 현실의 구체적 탐구나 객관적 소설화에서 실패(정호웅), 추상적 무시간성을 방황(김윤식), 몰개성적 허무주의(김현), 추상화 방법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김동환)고 평가되었다. 전시, 전후의 상황은 남성작가나 여성작가 모두에게 현실을 객관화시켜 보게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여성작가의 소설들은 남성작가의 소설과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좀 다른 점들이 목격된다.

김동환의 지적은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하나의 시사점을 마련해 준다. 1950년대 소설의 추상화를 현실인식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1950년대 여성작가의 소설도 현실인식의 한 형태로 보도록 권유한다. 1950년대 여성작가 중 손소희, 박경리, 한말숙, 한부숙, 강신재 등은 이러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여성소설들은 공통점 뿐만 아니라 각각 차이점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여성작가 중 가장 다작인 작가, 그리고 '가장 여류다운 여류'라는 평판을 받은 바 있는 강신재를 먼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강신재는 보편적인 질서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한 작가가 아니다.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와 그들이 부딪치는 상황을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작중 인물들과 함께 경험하고 삶을 모색하면서, 여성서사의 수립과 전망을

9) 김동환,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방법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1.

드러내려는 작가전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은 대략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중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가장 소외된 '역사 속 타자'의 전쟁인식과 역사인식을 새롭게 조명해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는 실존의식 계열로서 지식인 여성을 등장인물로 하여 실존의식에 도달하게 하면서 여성의 자아를 새롭게 보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한 유형이고, 셋째는 운명론적 삶에서 벗어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이면서 실존적 허무가 극복되는 계열이다. 첫 번째로는 「눈물」을, 두 번째로는 「어떤 해체」, 「백야」 「향연의 기록」 「제단」 「포말」 등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는 「해결책」 「제단」 「향연의 기록」이 해당되고, 첫째와 둘째 사이에 「낙조전」이 있다. 첫째 계열을 제외하고는 낭만적 사랑이 제시되며, 「낙조전」은 민중여성이지만 낭만적 사랑을 보이는 예에 속한다. 이 세 계열은 서술자의 서술시각, 태도, 여성인식론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모두 여성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1950년대 강신재의 소설사적, 특히 여성소설사적 의의망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의 특징 중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성 작가의 소설이 통상 사건사, 정치사 중심의 거대사적 접근 및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데올로기의 폭압성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멸 등으로 주제화¹⁰⁾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성소설은 대개 사건사, 정치사 중심이 아니라 개인-가족일상 중심이다.

특히 강신재 초기 단편¹¹⁾에서 전쟁은 '사건' 중심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10) 방민호는 광학송의 『자유의 궤도』 유형이 한국전쟁에 대한 남성작가들의 가장 보편적인 수용방식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고 본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이문열의 『변경』도 이와 같은 상상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들 작품의 주된 테마 가운데 하나는 이데올로기 비판이며 이념과 체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인간의 개인성을 옹호하는 데로 귀착한다고 한다.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p.120

11) 본고에서는 강신재의 1950년대의 두 단편집 『회화』(계몽사, 1958)와 『여정』(중앙문화사, 1959)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재는 1960년에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1960년대에

그 사건에 의해 인간이 황폐화되는 질곡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흔히 전쟁은 모든 가치를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비극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며, 또 전쟁만큼 인간을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없을 만큼 절대적인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비극성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이념의 폭력성으로서의 전쟁 인식도 남성 작가의 소설에서는 흔한 것이다.

강신재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 그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삶에 내재한 비극성이 전쟁에 기인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강신재는 삶의 비극성의 원인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은 인간 소외 등의 삶의 비극성을 표면화 또는 심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고, 운명적 삶을 폭로시키는 매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즉 초월적 가치를 인식/재인식시키는 매개(「여정」)로 작동한다. 또 인간 운명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재인식하게 해주는 매개로 인식된다. 즉 전쟁은 '매개'로 사용되었다. 이 '매개' 기능은 3장에서 언급되는 '관계적 자아'와 연결된다. 『여성의 인식 방법들』에서는 여성들은 통념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식 방법으로서의 듣기'를 여성인식의 특징으로 들었다.¹²⁾ 역사 속 타자였던만큼 통념을 무시하여 소외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주위와의 관계적 자아를 중시하면서 상호매개적 관점을 취한다.

강신재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심각하게 묻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작가의 소설에서 드러난 바 수난의식과 별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현실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것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황폐한 것이다. 강신재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사랑(애정갈등)을 통해 현실 및 역사를 인식하며, 일상 공간 속의 주위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역사와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전쟁은 애정갈등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고, 현실 인식과 역사인식의 매개가 될 뿐이다. 낭만적 사랑이 초점화되고 전경화

들어 장편을 쓰면서 일정한 변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1950년대 초기 단편만을 텍스트로 삼는 것은 무리가 없다.

12) Belenky 외, *읽 책*, pp.35-51.

된 「여정」 「향연의 기록」 「해방촌 가는 길」 「해결책」 「표선생수난기」 등에서 전쟁을 '매개'로 낭만적 사랑이 인식되고, 이는 여성의 사회인식과 역사인식의 통로가 된다.

첫 번째 계열인 「눈물」을 보자. 한 작품밖에 없는 계열이지만, 「눈물」은 강신재 초기 단편 중 남다른 독특성이 있다. 조남현에 의해 '최익 적극 가담자들의 심층 심리를 파헤치는데 당시로서는 유례가 드물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은'¹³⁾ 작품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는 「눈물」은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보이줄 수 없을 정도의 끔직한 추물이 된 송점화의 소외로 점철된 인생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흉칙한 외모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 송점화는 소외된 민중의 전형에 속한다. 「눈물」에서 여주인공 송점화에게 전쟁은 남달리 인식된다. 그녀에게 전쟁은 '총성'으로보다 '이웃 사람들이 피난 가는 소리'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보다 '쌀배급'으로 인식된다. 새 군대가 점령하여 공포가 넘치고 살기가 등등해졌지만 그러한 마을 풍경이 별로 두렵지 않다.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남겨 놓고 떠났다는 사실이 더 무섭고 끔찍할 뿐이다. 우리와 같은 대포소리, 고막을 찢는 총소리보다 송점화를 더 긴장시킨 것은 동네사람들이 '웅성웅성 급한 말소리를 주고 받으며' '절버덕 절버덕 피난 가는' 소리였다. 또 어떤 군대가 이 마을을 점령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송점화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송점화의 전쟁 인식은 '누군지 알 것도 없지만' 고평 배를 채워 줄 수 있는 '쌀배급'으로 인식된다. 즉 송점화에게 전쟁은 여성의 일상과 관련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쌀이 '배고픈 동무들의 것'이고, '부자놈들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인민군의 계급대립적 연사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성 역할 분담에 의해 안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의 특수한 경험은 전쟁마저도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한편 송점화에게 전쟁은 '인간대접 해주는 대상'이다. 전쟁은 그녀에게

13) 조남현, 「한국전시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p.44.

‘40여년만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다. 따라서 열성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수복이 되자 빨갱이를 잡아 주려다 함께 일당으로 묶여 처형되고 만다. 마치 『25시』의 주인공 모리츠와 『아Q정전』의 아Q의 혼합형 같다. 『25시』에서 작가 게오르규는 미소 양 진영에 갇힌 약소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묘사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정당히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유럽의 시간은 최후의 시간 다음에나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시간(25시)임을 천명한다. 송점화의 역사 속 시간¹⁴⁾은 역사 속 주체인 남성들과, 또 자신들도 타자이면서 추물이라고 소외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중소외를 겪으면서 형성되었다. 이중소외의 당하는 인물에게 구원의 시간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송점화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아Q와도 흡사하다. 아무리해도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이해되지 않기는 매일반이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난사당해야 했던 송점화는 전쟁이 원인이 무엇에, 누구에게 있으며,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자신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송점화는 정치, 전쟁,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등 거대사 중심의 용어와 개념으로 역사를 인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역사는 개인-일상 중심이었으며, 전쟁 또한 개인-일상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교육에서 소외되어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 등 거대사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서 늘 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던 민중인 때문이기도 하다. 송점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민중의 역사인식의 한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송점화의 전쟁인식은 이웃과의 ‘관계적 자아’를 중시하면서, 통념 중심의 표준적 지식을 추구하는 여성의 일상을 반영하며, 새로운 ‘자아탐색’에 나서는 소외된 민중여성의 역사를 향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송점화의 새로운 자아탐색은 남성 지배 사회의 객관적 역사인식 하에서 비롯된 것이

14) 여성의 시간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아니라 소외된 민중여성에게 형성된 '주관적 지식'이다.¹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남현의 '좌익 적극 가담자들의 심층 심리를 파헤치는데 당시로서는 유례가 드물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는 남근주의 비평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조남현의 평가에서는 주인공이 꼭 여성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여성 좌익이건 남성 좌익이건, 좌익 적극가담자의 심층심리만 분석한 것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좌익과 남성 좌익의 경우는 그 의미망이 좀 다르다. '뿌리깊은 열등감과 소외감', 무지의 소유자인 송점화는 역사로부터 소외되고, 역사로부터 전혀 혜택받은 바 없는 무지의 '여성'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기획된 것은 여성의 타자성을 확인시키고자 한 작가전략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눈물」은 민중 여성의 전쟁인식 및 역사인식을 통해 여성의 타자성을 확인시키고 역사로부터의 여성의 소외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전망에 도달하고자 한 작가의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실존의식 계열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계열에서도 전쟁인식 및 역사인식은 남성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 계열에서도 전쟁인식은 매개적이다. 전쟁인식은 애정갈등이 드러나면서 가능해지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남녀의 애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아니다. 전쟁은 오히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의미를 천착케 하고, 남녀를 결속시켜 준다. 그리고 갈등과 결속 사이에는 삼각관계¹⁶⁾가 있다. 이 삼각관계는 강신재 초기단편의 한 특징을 이룬다. 셋 중 한 사람의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전쟁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삼각관계는 전쟁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것이고, 삼각관계 중 고리가 약한 인물은 패배할 운명에 필연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전쟁이 사랑의 방해요인은 아니다. 삼각관계를 통해 강신재 초기 단편의 주인공들은 '절대고독

15) 『여성의 인식 방법들』에서는 여성의 인식방법의 특징 중 '주관적 지식'을 언급한다. Belenky 외, *위 책*, pp.76-86.

16) 이에 대하여는 양윤모가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양윤모, 「전쟁과 사랑을 통한 현실인식」,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자', '운명적으로' '던져진' 개인을 발견하게 된다. 삼각관계는 인간은 절대고독자라는 역사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고리가 된다.

따라서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는 가족의 유대나 가족의 의미가 별로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 다른 여성작가들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들의 중요도가 가늠되나, 강신재에게서는 이러한 면모가 약화되어 있다. 가족해체를 가장 전경화하여 드러내는 「표선생수난기」에서도 가족간의 유대나 부부 간의 애정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 사실은 서술자에 의해 대학교수이자 바람난 아내의 남편인 '표선생의 제일 큰 죄목'으로 규정된다. 「젊은 느티나무」를 포함한 1950년대 후반 작품에서는 다소 변화의 징조가 포착되고 1960년대에는 그 변화의 징조가 더 뚜렷해지지만 1950년대 초기 단편의 주조는 이와 같이 가족 간의 희박한 유대관계를 기저로 한다.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에도 끈끈한 유대가 별로 없다. 서로 무관심한 편이고 각자 '개인'의 고리에서 행동한다.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의구심을 불러 올 정도로 필연적 이유가 희박하며 항상 해체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신재는 박경리와 다르고, 또 손소희와도 다르다. 다른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삶에서 한국전쟁이 극단적인 가족해체와 재형성을 경험한 시기로 형상화된다. 이들이 해체당한 가족은 남편을 가장으로 하는 가족이었고 재형성된 것은 모중심 가족이었다. 전쟁은 남성 가장의 죽음 또는 부재로 인한 여성의 계층적 하락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형성케 하였으며 이 가족은 여성 가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 과정에서 전쟁은 여성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⁷⁾ 반면 강신재의 초기 단편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희박하기에 전쟁은 극단적인 가족 해체 및 재형성의 의미로 부여되지 않으며, 모중심 가족도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쟁은 그다지 큰 '사건'이 아니었다.

17) 박경리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강신재 초기 단편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역사인식은 '절대고독자'이다. 「어떤 해체」 「포말」 「제단」 「낙조전」 「눈물」은 절대고독자로서의 여성의 역사인식을 꺾진하게 드러내며, 정치사, 사건사, 사회사 등 거대사 중심의 역사인식이 아닌 개인-일상 중심의 전쟁인식을 보여준다. 이 계열에서는 낭만적 사랑이 절대고독자라는 실존의식과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의 강신재론에서는 낭만적 사랑에의 집착을 보인다는 점만 강조하고 절대고독자라는 실존의식과 연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낭만적 사랑만을 강조하면 강신재의 평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

「어떤 해체」에서 시정이가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슬픔에 울부짖기보다 '인간은 죽음에의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절대고독에 빠져드는 것이나, 「포말」에서 서술자인 나(연옥의 남편)가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에 고통 받으면서도 인간은 숨막힐 듯한 공포를 지닌 절연(絶緣)상태, 절대고독의 존재라고 느끼는 것, 또 「제단」에서 남편을 빼앗아간 동창 순정에게 분노와 증오로 대하기보다 그들의 사랑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절대고독자로 인식하는 것 모두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geworfen) 절대고독자라는 것이다. 무(無)에서 무로 부침하기에 분노와 증오, 질투 등이 무의미하다.

「어떤 해체」에서 전쟁에 차출되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시정은 남편의 생사를 가릴 수도 있는 전쟁 상황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운명적인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그녀는 고립감, 낙오감 등의 자의식에 빠져 일상을 권태롭게 느낀다. 전쟁 중임에도 그녀를 집착케 하는 것은 실상 남편에 대한 사랑¹⁸⁾과 증오심이다. 남편은 차출되어 나가기 전 미스 권과 동거를 한 바 있는데, 미스 권을 보자 그녀에 대한 경멸이 남편에 대한 경멸과 한편으로는 그리움으로 전이된다. 전사통지를 받고도 남편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슬픔으로 울부짖지 않는다. 오직 삶의 운명적 측면을 인식하

18) 이 때의 사랑은 '육체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강신재의 또 다른 특성을 엿보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며, 자의식에 빠져 고독감을 느낄 뿐이다.

시정의 이와 같은 고독감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희생자의 포기과 체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 또는 그 밖의 것(미스 퀸)에 의해서도 남편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즉 생애 내재한 보편적인 비극성을 확인하고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포말」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기술되어 있으나 상흔이나 그로 인한 고통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 「포말」에서 인간은 언제나 시대의 조류에 밀려 등등 떠다니는, 운명적으로 포말과 같은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은유한다. 인간은 불안이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숨막힐 듯한 공포'를 가지고 이 절연상태, 절대고독의 상태에 놓인 존재이다.

「포말」에서 '바보같은 나'의 집에는 나와 아내 연옥, 그리고 아내에게 임신시키고 나와 결혼하라고 한 김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다. 아내인 연옥은 한국전쟁 전부터 우익투쟁을 하던 김이라는 남자와 연애하고 임신까지 한다. 그러나 그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또 아무도 그 이유를 전혀 알고자 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서 유운삼더러 연옥과 결혼하라고 한다. 결혼한 지 5-6개월 만에 출산하나 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곧 죽는다. 인민군 지하에서 김은 이들 집 다락방에 피신하여 지낸다. 유운삼은 동위원회에서 탄환나르기 등 부역활동을 하는데, 휴전 후 경찰서에서 심문받는 등 고통을 당하고 정부에서 개최하는 복진통일 집회 등에 앞장서게 되는 등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유운삼의 고통은 마치 가치배제적¹⁹⁾인 것 같은 시각 속에서 아주 담담하게 서술된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늘 이렇게 시대의 조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포말같은' 존재라는 것이 이 소설의 역사인식이다.

「제단」에서도 한국전쟁은 주인공들의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적 사건이

19이다영은 이를 '총괄하는 화자의 부재'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다영, 「1950년대 강신재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아니다. 전쟁보다 남녀 간의 사랑이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며, 전쟁은 그들의 사랑의 진위 및 사랑의 열렬성 등을 진단하는 '시금석' 일 뿐이다. 나(명덕)의 영문과 동창인 순정은 한마디로 감성이 아주 풍부한 여성이다. 그녀는 솔직하고 미적 감각이 있으며, 정서적 감동이 많은 여자이다. 그녀에게는 '한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음악을 들을 때면 '전신이 귀가 된 듯' 하고, '온 몸의 피부로 이슬을 촉감하고 있는 듯' 한 사람이다. 그러나 순정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참으려고 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일은 절대로 배격'하는 등 충동적이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종종 벌이곤 하였다. 순정은 내(명덕)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냈고 서로 약혼한 사이같은 남자인 김현식과 사랑하다가 그가 각혈하기 시작할 때 전쟁이 최종단계로 들어서면서 내려진 여대생을 동원령을 피한다는 명목 하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다.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김현식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말해지지 않은 채. 그 사이 나는 김현식과 결혼하였으나 전쟁이 나자 남편과 순정은 좌익활동으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야반도주 하게 된다. 서술자는 남편과 친구의 '불의의 사랑'을 숙명적인 것,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했던 것처럼 기술된다. 나는 이러한 세상을 '眞도 善도 美도 사람이 좌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절대고독의 존재로 느낀다. 즉 전쟁은 이들의 사랑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은 절대고독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인식을 위해 매개(시금석)로 작용하였다.

「향연의 기록」은, 「제단」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형성 되는 것이고, 남녀의 '정열에 우연이 한 몫 끼어 들어서 적은 그물을 던져주는 것(p.100)이다. 세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별 상관없이 없다. 남녀의 '우열한 번거로움이 소위 정열이란 것의 소산' 이고 세상은 이 남녀 간의 정열의 소산으로 얽히고 설키는 것일 뿐이다. 「향연의 기록」은 약혼식 하루 전날 우연히 만난 박관호란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언니가 결혼은 염두에도 없이 박관호와 동거상태에 들어간다. 이 소설에서도 전쟁은 언니와 박관호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 전쟁이 이들 가족에 끼친 비극 등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들의 애정의 삼각관계는 모두 운명적인 것으로 기술된다.

「낙조전」에서도 여주인공 옥례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어딘지 모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운명의 연속으로 고통받는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행위를 '우연히' 현 남편인 덕구에게 들킨 뒤 그의 생 억보같은 이끌림에, 약탈당하듯이 혼인하게 된 옥례는 전쟁때문에 인민군을 위해 식사준비하는 일꾼으로 부당하게 얽혀 들어가도, 우연이 옛날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보게 되어도, 국군이 들어와 인민군을 처형하면서 자기 부부도 억울하게 처형당하게 되어도 모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전쟁보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운명이야말로 비극적인 것이다.

두 번째 계열에서의 '포말' 과 같이 떠다니는 실존의 운명성, 실존의 우연성은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여성 현실의 위상을 상징으로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속 타자로서, 역사로부터 소외되어 '포말' 처럼 부유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이야말로 실존의 우연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실존철학은 두 가지 성격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하나는 실존하는 존재의 주관적 인식을 더 우위에 두려는 제반 사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휴머니즘의 지향을 통해 작가가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문학은 현실의 부정성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성격이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남성작가로 장용학과 손창섭을 들 수 있다.

강신재는 이들과 변별된다. 장용학과 손창섭의 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은 전체적으로 '전후의 현실비판과 극복의식' 으로 요약되지만,²⁰⁾ 강신재에게서는 이러한 비판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위 두 작가의 소설 주인공들이 자폐적이거나 피해의식을 부각하는 인간상들이 주종이라면, 강

20) 배경열, 『한국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태학사, 2001. p.248

신재에게서는 자폐적인 모습은 실존의식의 형태로 일부 드러나지만 피해 의식은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계열의 절대고독자라는 역사인식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그 결과 대타적으로 얻은 역사의 상실, 역사의 무의미로 나타난 역사인식이 아니다. 역사의 의미를 아예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현기증나는 이 불안스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절대고독자를 만들어 우연의 주인이 되게 한다²¹⁾는 점에서, 또 우연의 부조리를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로부터의 도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자유존재²²⁾인 절대고독자이고, 세계의 근거와 자기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부조리한 세계²³⁾라고 말하기에 역사로부터의 도피는 아니다.

위 초기 단편의 주인공들은 전쟁의 의미를 물어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이기에 묻지 않는 것이다. 역사 속 타자들은 답변을 들을 수 없기에 역사 및 사회로부터 개인을 차단한다. 역사와 소통하지 않는, 역사로부터 차단된 개인의 실존이기에 즉자적이지만, 이는 역으로 역사로부터 그만큼 소외되어 왔음을, '포말' 처럼 부유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언표한다는 점에서 현실비판성을 지닌다. 이는 '전후의 현실비판과 극복의식'으로 요약되는 남성 작가의 현실비판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강신재의 독특성이 인정된다.

세 번째 계열은 두 번째의 실존적 허무를 극복하면서 삶의 건강성, 능동성, 적극성을 드러내는 유형으로서 「해결책」, 「제단」, 「향연의 기록」과, 전쟁상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젊은 느티나무」, 전쟁 후 상황을 그리고 있는 「해방촌 가는 길」과 「관용」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이들은 실존의식의 세계로부터도 일부 탈출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제단」의 순정이, 「향연의

21)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5, p.138. 실존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의 우연성' 이라 한다.

22) 윗 책, p.137

23) 윗 책, p.174

기록」의 언니, 「해결책」의 김미라, 「해방촌 가는 길」의 기애, 「관용」의 팻지는 역사적 실체성을 한층 강화 받으면서 건강성과 능동성을 통해 실존적 허무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을 살펴 보자.

양공주를 소재로 '전쟁 후'를 다루고 있는 「해결책」은 우리 소설사에서 양공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전쟁은 김미라와 같은 똑똑하고 건강한 양공주를 배태시킨 장본인으로 인식된다. 만삭의 아내 덕순을 두고 남편이 개성 퇴거 출신(10살이나 위인)과 첩살림을 차리자 아내 덕순은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는다. 마침 이층에 세든 양공주 김미라에게 어떤 방법이 좋냐고 묻자 김미라는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법적인 방법을 택하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자 덕순은 그 방법을 포기한다. 돈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라면서 다른 방법을 묻자 이번에는 염산을 확 뿌려 주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덕순은 그 방법도 시행하지 못한다. 결국 덕순은 남편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매만 흠신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만을 바라면서 모든 해결을 출산 이후로 유보한다. 여학교 출신의 가정 주부와 양공주와의 연대가 그려진 유일한 소설이지만, 그 연대가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 덕순은 여학교 출신임에도 양공주보다 훨씬 지식이 못된 인물로 그려진다. 덕순은 김미라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는데, 양공주이기 때문에 부러운 한편 또 양공주이기 때문에 '무언지 정상적이지 않고 세우차 보인다'는 것이다. 이 중 이 소설은 모멸 쪽보다 선망 쪽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낸다. 모멸적인 부분은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양공주의 긍정성을 더 많이 확보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김미라를 부러워 하는 이유는, 너무 자유롭다는 것과 돈이 많다는 것, 그리고 칸나처럼 싱싱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덕순에게 양공주는 '공주답게 어여쁘고', '사치하고', '편안해' 보인다. 양공주에게서 덕순은 가부장제를 일탈하는 여성의 한 사례를 본 것이며, 여성의 진정한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소설은 가정주부에

게 가부장제의 억압이 얼마나 자심한지를 역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양공주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언표하며 낭만화한다. 전쟁은 김미라의 약혼자를 전쟁터로 불러냈고 그가 전사한 줄로만 안 김미라는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남자와는 사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양공주가 된다. 물론 이에 생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 요인이며 약혼자에 대한 순정이 주요요인이다. 소설은 김미라의 순정을 낭만적 사랑으로 확대하면서, 김미라의 건강성을 최대치로 확장하여 놓았다. 전쟁은 남녀 사이를 왜곡시켜 인생의 전선을 뒤바꾸어 놓기는 하였지만 비극적이지는 않고 김미라 자신도 오히려 훨씬 긍정적 인물로 변모시켜 놓았다. 전쟁은 김미라라는 한 여성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지켜주었다. 덕순에게 전쟁은 그 주변 사람의 일상을 통해 간신히 인식될 뿐이며, 그 이상의 거대사적 의미는 없다. 시대적 배경이 전쟁 후여서인지 이 소설에서는 운명론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 세 계열은 서술자의 서술시각, 태도, 여성인식론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모두 여성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1950년대 강신재의 소설사적, 특히 여성소설사적 의미망을 확보한다.

3. 여성의 시간: 개인-가족 중심의 비사건적, 비직선적 시간

서구의 근대적 시간관에 따르면, 시간은 동질적이며, 세속적이고, 양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예:시계).²⁴⁾ 이러한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 형성의 토대가 되며, 이에 기초하여 '진보'의 코드가 만들어진다. 직선적 시간관의 단계적 발전 선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진보'의 적용에서 부정당하는 가치의 재배치가 일어난다.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의 코드를 바탕으로 민족국가 간의 경쟁, 성 차별 논리가 당연시 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및 남녀

24) 근대적 시간관에 대해서는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참조.

성 차별 논리가 생성된다. 시간의 단일성 안에서는 시간의 상이성이 폭력적으로 망각되고 근대적 시간만이 유일무이성을 획득한다. 근대의 시간관인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남성의 시간이다.

일찍이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시간이 남성의 시간과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시간이 '순환적'이라고 한다.²⁵⁾ 제이 그리피스도 남성의 시간은 선적, 지속적이고 거대한 발전으로 나타는 데 비해 여성의 시간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여성은 결코 단수(單數)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묘사 상징하는 방식은 그 시대의 여성성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²⁶⁾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 시간인식은 근대의 시간관인 직선적 시간관과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사건 중심'의 아이온의 시간²⁷⁾이 아니다. 강신재 초기 단편에 나타난 시간은 6·25라는 과학적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 시간, 과학적 시간으로 볼 때 6·25는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6·25라는 명명은 이 사건을 발발 시점과 연관지어 부르는 명명법이다. 세계 어느 전쟁도 발발일을 기준으로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예가 없다²⁸⁾는 점에서 6·25라는 명명법에 '기억의 정치학'이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모두 한국 전쟁(Korean War)라 부르고 있으나 유독 남한만이 6·25라 명명한다. 6월 25일에 북한에 의해 '기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는 결

25) J. Kristeva, "Women's Time", *Feminism: Critical Concepts i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volume II, edited by Mary Evans, Routledge, 2001.

26) Jay Griffiths, 박은준 옮김, 『시계 밖의 시간』, 당대, 2002, 5장, 6장 참조.

27)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pp.458-470 참조. 이정우는 '사건의 시간'은 '아이온의 시간'으로, '물체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쟁여짐의 시간, 감김의 시간이며, 아이온의 시간은 순수 사건의 시간이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체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시간이며 조화로운 것이고 복수의 시간이 가능하고 순환적인 반면, 아이온의 시간은 순간적인 존재의 시간이며 과거와 미래로 쪼개진다. 이 아이온의 시간은 직선적 발전론과 맞닿아 있다.

28) 김동춘, *위 책*, p.20

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²⁹⁾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도 6·25라는 언급은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³⁰⁾ 하지만 이러한 명명법의 내포와 달리 강신재 초기 단편에 나타난 시간인식은 좀 다르다.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건' 중심의 아이온의 시간, 거대사적 분절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가족 중심, 일상 중심으로 인식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체험이라는 물체의 운동과 함께 인식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여성의 시간이, 특히 소외된 민중계층인 여성의 시간이 현저히 개인-가족 중심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이미 율택림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율택림에 의하면, 성 역할 분담에 의해 마을일을 주로 담당하는 여자들의 시간은 주로 결혼, 첫 아이의 출산, 죽음같은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측정되었다.³¹⁾

강신재의 주인공들이 느끼는 시간은 어떠한가. 「눈물」의 송점화는 6·25를 발발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6·25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다. 6·25는 6월 25일이라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6·25라는 시간은 단지 '동네 사람들이 피난 간 시간'이다. 자신만을 따돌리고 피난 갔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던 암흑천지 같은 시간일 뿐이다. 「어떤 해체」에서 6·25는 남편을 차출해 간 시간이며, 피난의 고통보다는 피난행에서 '어긋난 남편을 찾아다녔던 시간'이다. 「포말」에서도 6·25는 아내의 애인인 김이 화자인 나의 집 다락방에서 석달 동안 지낸 시간이고, '그렇게 쥐구멍을 못찾고 전전공공하던 시간'이다. 또 어떤 이유인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아내가 부역하라고 하여(부역은 '나쁜 짓'이라고 해석된다) 무진 고생을 한 시간이다. 또 「제단」에서 6·25는 '남편과 순정이 야반도주한 시간'이다.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이십일 동안이

29) 김동춘, *읽 책*, p.19

30)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 이 사건은 '6·25' 외에 '동란', '사변' 등으로 같은 작품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섞어 사용되고 있다.

31) 율택림, *읽 책*, p.232

일생의 가장 비참한 한 토막이었'다. 「향연의 기록」에서는 약혼을 하고도 약혼자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 '박관호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식된다. 또 서술자의 집을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여 '무척 불편하였던 시간'이고, 급기야 '언니가 죽은 시간'이다. 「낙조전」에서도 이상하게 얽혀들어 인민군 식사대접하는 일감을 맡게 된 시간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다들 어느 틈에 없어진 시간'이며, 옛날부터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애끓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시간'이다. 물끄러미 있다가도 그가 죽기 전에 밥 한 끼 해먹여야 된다고 부산떠는 그런 '개인의 일상적 시간'이다.

「표선생수난기」는 이제 야간대학생이 된 옛 식모의 기록으로, '내가 경험한 6·25의 기록'이라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나의 기억 속에서 6·25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들의 친구인 춘식과 애정을 나누던 시간'일 뿐이다. 6·25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시간이다. 6·25에 대한 기억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다. 그 이후의 부분은 전해 들은 이야기라 그런지 웬지 두서없는 편이다. 물론 내가 피난갈 무렵 이들과 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 피난 이후의 정황은 전해들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소설 구조의 불균형이 띠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화자가 겪은 전반부와 전해들은 후반부는 그 서술방법이 다르고 시간인식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강신재 초기 단편에 나타난 시간은 개인적, 가족적 테두리 내에서, 체험 영역의 한계 내에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시간'들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거대사적으로 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직선적, 진보적 시간관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등장인물들의 시간과 좀 다르다. 강신재 초기 단편의 시간인식은 직선적 시간인식이 아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기에 발전해 갈 사건도 없지만,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어 발전되지도 않는다.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점과도 일치한다. 여성의 이러한 시간인식은 성 역할 분담에 의해 그들의 활동영역이 '집안일'로 한정되었던 이유도 있지만, 여성의 인식방법과 삶 운영태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직선적 시간인식은, 직선적 시간관이 시간의 단일성만을 인정하는데

비해 시간의 상이성을 용인하고 복수(複數)의 시간을 인정한다. 즉 비직선적 시간관에서는 상호주관성이 인정된다. 이 상호주관성은 비로소 지양(aufheben)을 가능케 한다. 이런 점에서 비직선적 시간인식은 시간적 상이성을 폭력적으로 망각함으로써 성 민족 계급 등의 각종 차별코드를 생산하는 직선적 시간관을 비판 극복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시간을 인정할 때 근대적 시간관, 진보적 시간관, 더 나아가 근대의 폭력성까지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근대성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인식방법, 여성의 시간관을 설명하는 틀로는 낸시 초도로우가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한 바 있고, 캐롤 길리건이 언급한 바 있는 '관계적 자아'³²⁾와, 여성의 '인식방법'(women's way of knowing, women's way of seeing), 남녀 대화방식의 차이³³⁾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초도로우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서 여성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하여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만이 아닌 이웃과 주변으로 설정해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캐롤 길리건도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성찰적 자아에서 찾기보다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관계적 자아에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여성의 인식 방법들』에서 말한 통념 중시의 표준지식 강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식 방법으로서의 듣기'도 관계적 자아와 연관된다.³⁴⁾ 역사 속 타자였던 만큼 통념을 무시하여 소외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주위와의 관계적 자아를 중시하면서 상호매개적 관점을 취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독립/유대관계, 상하관계/대등관계, report-talk/ rapport-talk, 정보성/친교성의 이항대립에서 전자는 남성의 대화방

32) Nancy Chodorow,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 1978.

33) 주 1) 참조.

34) Belenky 외, *위 책*, pp.35-51.

식, 후자는 여성의 대화방식의 특징이라고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유대관계와 대등관계를 기준으로 대화하며, 공감을 목적으로, 친교를 중시하는 대화방식을 띤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성 배제적 차이'가 아닌, '성 선호적 차이'에 해당된다. 수천년 걸쳐 진행된 남성지배 사회는 성 선호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여성의 인식방법 및 대화방식마저 다르게 만들었다.

4. 기억의 정치학과 소설-사회의 상동성

지식과 권력은 헤게모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를 재현하는 사고 체계를 재생산한다. 역사, 문화, 문학은 이 재생산방식에 속한다. 기억의 사회적 생산과정 두 가지, 즉 공적인 재현과 사적인 기억 중에서 공적인 재현 방식은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하는 한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사적인 기억은 일상생활 중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실제로 침묵된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과 침묵되는 것, 기억되는 것과 지워지는 것의 해독/재해독 작업을 통해 그동안 지배서사기 이룩한 진리확정 작업이 여성의 역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거대 중심 역사에서, 지배적 기억은 역사에 의해 장악된 기억이며, 침묵되어진 것과 지워진 기억은 대항기억을 구성한다. 대항기억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압제하는 압' 속에서 무시되거나 폄하되거나 차별되었던 '홀어진 기억'들을 재조립하여 부활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바로 푸코가 말한 '국부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폄하되고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앎들에 활기를 불어 넣는' 작업이다. 즉 과학과 객관성의 이름으로 포장된 공식기록, 공식기억들 속에서 예속되었던 앎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속된 앎을 부활시키고 해방시켜 새로운 객관성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모든 역사는 이제 객관적 재해석의 출발점 위에 서있다.

강신재의 초기 단편과 60년대 장편,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억의 정치학의 전개과정이 확연히 개재되어 있다. 무엇이 기억되고 어떤 것이 침묵되는지, 왜 기억이 부인되고 침묵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강신재의 초기단편은 거개가 인공치하 3개월 동안의 일이다. 「어떤 해체」 「포말」 「제단」 「향연의 기록」 「눈물」 「낙조전」 「표선생수난기」 등은 적치하 3개월과 국군-유엔군의 상륙으로 정세가 막 변화된 시기까지가 주요 시대적 배경이다. 이 시기에 등장인물들은 부역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부역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거의 침묵된다. 김동춘의 지적처럼 이 시기 보통 사람들은 '살아남는 철학' 하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인민군이 들어 왔을 때는 인민군에게 국군이 들어 왔을 때는 국군에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³⁵⁾ 그럼에도 부역활동의 이유와 목적은 거의 침묵된다.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지 않는다. 항변은 커녕 오히려 거의 모두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왜 부역활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등은 어리숙한 화자 또는 초점화된 주인공에 의해 '모르는 것'으로 진술된다. 「제단」에서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좌익활동을 한 사실은 한 줄로 언급될 뿐 서술 속에서 배제된다. 왜 배제되어야 하는지 아무 언급도 없으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채근하지 않는다. 서술자 또는 초점화된 주인공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또 애써 가치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것이 아니다. 마치 가치배제적 시각으로 중립적 관점을 취하는 것 같으나 기실은 침묵-배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포말」에서 어리숙한 1인칭 주인공 유운삼이야말로 기억의 정치학의 한 단면을 뚜렷이 징표한다. 나는 김이 왜 연옥과 결혼하라 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아니 그 전에 연옥과 김이 먼저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연옥이 5-6개월만에 출산하였음에도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또 형사가 찾아와 한국전쟁 때 무엇을 했는지 물어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는

35) 김동춘, *읽 책*, p.82

다. 피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물어도, 누가 그를 찾아 왔었는지 밝히지 않는다. 유운삼은 김이 왜 갑자기 집을 뛰쳐 나갔으며, 연옥은 왜 김더러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질문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부조리한 세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에 관련되며, 사랑하는 연옥을 잃을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덮어두며 살고자 한다.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억이 흐려져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식으로 침묵하며 배제하고 지워버리고자 한다. 유운삼이 모르겠다는 것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내인 연옥의 사랑과 관련된 것이며, 하나는 공산당 부역행위에 관한 것이다. 연옥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고, 아내는 아직도 김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숙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보기에 누가 진정 연옥의 남편인지 의심할 정도이다. 취조하던 형사들마저 '남의 사내를 감추어 주구 제 남편은 길에다 내놓아?' 라며 빈정거린다. 진실을 파헤쳐 따질 경우 드러날 진실이 두려운 유운삼은 모든 것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다. 부역행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전반부에서는 '나의 6·25 당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나쁜짓'으로 언급한다. 또 우익활동을 한 '김과 같은 애국자를 위하여' 자신은 김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도 나온다. 따라서 이는 가치배제적 관점이라 할 수 없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며, 공산당에의 부역행위를 손수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유운삼에게 이미 침묵과 배제의 기억의 정치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향연의 기록」에서도 소설 중간에 느닷없이 '사변 중의 일을 상세히 기록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p.112)'라는 서술자의 고백이 나온다. 상세히 기록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나, 그런 적극적 방식을 도입하기보다 침묵과 배제의 정치학을 택한 것이다. 혹 입을 열었다가 자칫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이 때부터 국군의 입성으로 '전쟁이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p.117) 기술되기 시작했으며, '아군이 의정부 근방에서 용감하게 전투하고 있다는 방송이 나오는데도(pp.109-110) 빨리 피난가야 한다고 서두른다.

「부두」에서도 동란 중 민청에 드나들었던 셋째 아들의 경우 그가 왜 민청에 드나들었는지는 침묵된다. 「낙조전」에서도 뜻하지 않게 부역활동을 하게 된 것 뿐 이에 대한 긍정 부정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표선생수난기」에서도 완규는 의용군에 지원하고, 춘식이 열성분자가 되어 있었다고만 결과적으로 기술될 뿐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와 관련된 내용은 침묵되거나 배제의 원리 하에 삭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빨갱이로 몰리거나' '사상범으로 몰릴까봐' 입을 열지 않는 것이다. 부역활동과 의용군 입대 등은 남한사회의 공식 역사 즉 반공주의 노선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빨갱이 가족의 삶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³⁶⁾ 자신의 체험이 공식 체험과 배치,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박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억압받는 체험'이며, '부인된 기억'이다. 전쟁 직후부터 우리 소설에서는 이러한 기억의 정치학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강신재의 초기 단편은 확실히 확인시킨다.

기억의 정치학은 침묵과 배제뿐만이 아니고 조금씩 지배계층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피난(특히 1차 피난)과 관련한 묘사가 바로 그 부분이다. 당시 일반 민중들은 전쟁 발발 직후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서 피난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한다. 전쟁 발생 당일이나 그 이튿날도 서울의 일반인들은 별로 동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정권에 연루되지 않았던 보통의 한국 민중들은 전쟁이 발생했더라도 그냥 살고 있는 곳에서 생업을 도모하는 길을 택하였다. 당시 이화여대 교수였던 김태길은 전쟁 전부터 계속 무력충돌이 국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발발 역시 사소한 무력충돌의 하나로 인식하였다³⁷⁾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1차 피

36) 윤택림, *잊혀진 책* 및 김동춘, *잊혀진 책* 참고.

37) 김동춘, *잊혀진 책*, pp.78-9, pp.97-105 참조

난 때는 잔류한 수가 훨씬 더 많았다.³⁸⁾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강신재 초기 단편에는 ‘피난기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피난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을 묘사하면서도(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언급한 「향연의 기록」부분) 피난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등 장인물들은 말한다. 멀리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일단 피난가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해 놓았다. 이는 실제 그 당시 국민들의 행동양상과는 다른 것으로, 기억의 정치학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민군이 쳐들어 온 것이니만큼 이는 공산주의 배격효과를 갖는다.

초기단편의 세계가 침묵과 배제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1960년대로 넘어가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1962)³⁹⁾에 이르면 사정이 아주 달라진다. 기억의 정치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확연히 알게 하는 부분인데, 『임진강의 민들레』에서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침묵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반공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자 및 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치의 재배치를 하기 시작한다. 반공주의 시각을 지닌 화자가 전격적으로 등장하며,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언하기 시작한다.

『임진강의 민들레』에서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비정한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p.85, p.96) 특히 김오식의 경우 좌익활동을 하기 전엔 아니었는데, 좌익활동을 한 이후에만 ‘비정한 인물’로 언표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사납고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종’(p.131)이라고 극언된다. 또 여주인공 이화는 동생 옥엽에 대해 화가 치미는데 그 이유는 옥엽이 ‘괴뢰군에 대해서 공포나 꺼림직함조차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p.172)기 때문이다. 이화에게 괴뢰군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면 이러한 개인적 사고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화에

38) 당시 서울 인구 144만 6천명 중 40만명이 수도가 인민군에게 점령되기 전에 남쪽으로 피난 갔다고 한다. 그 가운데 8할이 월남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2할인 8만명이 정부고관, 우익정객, 자유주의자, 그리고 군인과 경찰 가족이었다고 추정된다. 김동춘, 윗책, p.98에서 재인용. 위의 계산에서 볼 때 당시 피난간 사람은 40만명, 안 간 사람은 100만명으로 안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9) 이하 판본은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민음사, 1996판을 인용하였다.

게 그러한 상황은 소설에서 주어진 적이 별로 없다. 단지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자 윤지운과 헤어졌을 뿐이다. 아직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화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상황과 맞지(decorum) 않는다. 그럼에도 피뢰군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초기 단편에서는 엿볼 수 없었다.

또한 여성 공산당원의 복장인 '까만 몽당치마에 흰 적삼' '맨 발에 고무신'은 초기 단편에서와 달리 묘사된다.

(1) 까만 몽당치마에 흰 적삼을 입고 맨 발에 고무신을 끈 순정이가 남편이 일하고 있는 대학 구내로 들어가는 뒷모양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꼭 발을 하기에는 꼭 알맞은 세상이기도 하였습니다.(『체단』, p.83)

(2) 까만 몽당치마에 흰 적삼을 입고, 맨 발에 물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어느 사이에 길렀는지 두 갈래로 갈라 땅아 앞 이마로 빙 돌려 얹은 것은, 평양적인 무드라고나 하는 건가? (1줄 중략)

“항상 유행의 첨단을 가시는군”

하고 이화는 고소했다.(p.130)

'까만 몽당치마에 흰 적삼'과 '맨 발에 고무신'은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부터 여성 공산주의자의 의상의 전형으로 굳혀진다. 하지만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단편에서는 단지 여성 공산당원의 복장의 '특징'으로만 담담하게 묘사될 뿐이었다. 반면 『임진강의 민들레』에서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평양적인 무드'라고 비꼬아지고 있으며, 고소해 하는 것으로 중오가 섞이게 된다. 중오가 있다면 (1)의 예가 사실은 더 적절하다.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에서는 담담하게, (2)에서는 비아냥거리며 거부하는 어투로 서술되고 있다.

소설 전개상 굳이 필연적이지 않은 이와 같은 서술 및 서술자의 시각, 주인공들의 발언은 이미 1960년을 넘어서면서 반공주의 시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정착했음을 반증한다. 이미 1950년대에 반공규율사회의 정착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⁴⁰⁾, 강신재 소설의 이러한 변모는 남한의 공식 역사에서 기억이 정치학이 작동되는 전개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골드만 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설과 사회의 상동성(homology)이다. 남한의 공식역사는 남한의 핵심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던 인사들의 '적 치하' 체험을 휴전 이후 국민의 공식 체험으로서 신화화한다. '공산주의=인류의 영원한 적'이라는 도식으로,⁴¹⁾ 남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쟁 해석 및 역사인식은 이로부터 서서히 사라져 가게 된 것이다. 휴전 직후부터 '체험과 기억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남한의 공식 역사와 강신재의 소설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당대에 '가장 여류다운 여류'라고 평가받은 바 있는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195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전쟁인식 및 역사인식, 그리고 '기억의 정치학'의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역사 속 타자'였던 여성의 특수한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였다. '주체'와 '타자', 지식인 엘리트와 민중, 남성과 여성의 역사인식, 사회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이는 총체적 인식의 부족, 당대성의 결여 등으로 타매, 폄하, 비하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인식방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남성과 여성의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면서, 주체의 관점과 타자의 관점을 대

40)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화』, 함께 읽는 책, 2003. 제1장, 제2장 참조. 반공규율사회는 지배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이 반공주의가 되는 사회를 의미(p.52)하며, 남한의 경우 1950년대의 '반공 전시(戰時)사회'로부터 1960년대 이후의 '반공병영사회'를 거쳐 1987년 이후 반공규율사회의 해체적 변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26)

41) 김동춘, 앞 책, p.25

자적으로 상호매개한 '우리'의 관점(Für Uns)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종래의 역사해석 내지 인식의 주체는 국가 내지 민족이었으며, 이들 민족과 국가는 대체로 남성과 동일시되어 왔다. 한국전쟁에 관한 여러 방대한 연구성과 속에서 전쟁 경험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여성의 경험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한 민족, 민중, 여성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오로지 국가의 관점, 반공의 관점만 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민중과 여성의 전쟁 체험과 기억은 '예속된 앎'으로서, 그것은 지배적 앎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은 전쟁을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남성 작가의 소설이 통상 사건사, 정치사 중심의 거대사적 접근 및 인식을 드러낸다면, 여성소설은 대개 개인-가족-일상 중심이다.

강신재는 삶의 비극성의 원인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은 인간 소외 등의 삶의 비극성을 표면화 또는 심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고, 운명적 삶을 폭로시키는 매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즉 초월적 가치를 인식/재인식 시키는 매개로 보였다. 낭만적 사랑이 보다 초점화되고 전경화되어 나타난 경우에도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사회인식과 역사인식의 매개가 된다. 이 '매개'는 '관계적 자아'와 관련 있다.

초기 단편 중 민중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계열은 남성의 인식방법과 확연히 다른 인식방법을 드러낸다. '관계적 자아' 중심의, 일상 중심의, 비사건 중심의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지식인 주인공인 실존의식 계열의 두 번째 계열은 포말과 같은 절대고독자라는 실존의식을 통해 역사로부터 소외당한 역사 속 타자의 포말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언표한다는 점에서 비판성을 지닌다. 세 번째 계열은 실존적 허무에서 벗어나 건강성, 능동성, 적극성을 확보케 해준다는 점에서 여성서사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다. 이 세 계열은 서술자의 서술시각, 태도, 여성인식론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모두 여성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1950년대 강신재의 소설사적, 특히 여성소설사적 의미망을 확보한다.

강신재 초기 단편에서 시간인식은 근대의 시간관인 직선적 시간관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건 중심의 아이온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 가족 중심으로 인식되는 비사건적, 비직선적 시간이다. 이는 개인적 체험이라는 물체의 운동과 함께 인식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여성의 이러한 시간인식은, 시간적 상이성을 폭력적으로 망각함으로써 성 민족 계급 등의 각종 차별코드를 생산하는 직선적 시간관을 비판 극복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띤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는 낸시 초도로우와 캐롤 길리건이 말한 '관계적 자아'와, 여성의 '인식방법'(women's way of knowing, women's way of seeing), 남녀 대화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지식과 권력은 헤게모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를 재현하는 사고체계를 재생산하고 이는 '기억의 정치학'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억의 정치학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하는 것은 공식기록으로 보존되고 확대재생산되며, 이와 배치되는 것은 침묵되고 배제되는 해독/재해독 작업을 거친다. 여성의 인식방법 및 결과는 지배서사가 이룩한 진리확정 작업을 통해 폄하되고 침묵되고 배제되었다.

강신재 초기 단편은 이 침묵과 배제의 기억의 정치학을 잘 보여주며, 초기 단편에서 1960년대의 장편 『임진강의 만들레』에 이어지는 과정은 서술자의 시각, 등장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반공주의 시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정착했음을 반증한다. 이미 1950년대에 반공규율사회의 정착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강신재 소설의 이러한 변모는 남한의 공식 역사에서 기억이 정치학이 작동되는 전개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골드만 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설과 사회의 상동성(homology)이다. 남한의 공식역사는 남한의 핵심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던 인사들의 '적 치하' 체험을 휴전 이후 국민의 공식 체험으로서 신화화하면서 '공산주의=인류의 영원한

적'이라는 도식으로 설정한다. 이로부터 남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쟁 해석 및 역사인식은 서서히 사라져 가게 된다. 모든 역사가 현재의 역사이듯이 모든 기억도 현재의 기억일 뿐이다.

■ 필자 : 명지대 교수

〈참고문헌〉

- 곽차섭, 『미시사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참고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복순, 「여성역사소설로서의 『토지』와 여성영웅성」,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인하대 박사논문, 2003.
-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 배경열, 『한국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태학사, 2001.
- 양윤모, 「전쟁과 사랑을 통한 현실인식」,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 윤택립,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역사비평사, 2003.
- 이다영, 「1950년대 강신재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5.
-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 알트 루트케 외, 이종석 외 옮김, 『일상사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진후문학』, 1991.
- Belenky · Clinchy · Goldberger · Tarule, *Women's Way of Knowing*, Basic Books, 1997.
- Deborah Tannen,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William Morrow, 1990.
- Deborah Tannen,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Abstract

The Politics of Memory and the Perception of War in a Woman Writer's Short Stories in the 1950'

Kim, Bok-Soon

It makes women have a different perception on history from that of men, that women have been 'The Others in History'. Since men have been the 'subjects' and women the others in history and society, it is unavoidable. It is another way of perceptions on world.

So far, the subject of perception on history has been nation, or man. In case of Korean War, the perspectives of either ordinary people or women are excluded. Only those of nation or men are found.

Kang Sin Jae did not interpret the war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ical events. While men describe historical events or show perceptions mainly based on historical events, women wrote her story from rather personal standpoints of view.

In Kang Sin Jae's short stories, the war was described such personal things as 'neighbors running away' or 'handing out of rice'. Those things were used to emphasize the tragedy of lives. Women dream of romantic love affairs even during the war, and the stories were usually ended in the message that 'humans beings are nothing but the absolute solitude existences themselves'.

Such a perception is not a escape from history. Women perceive that the world is absurd and history is meaningless. This is

'herstorical consciousness.'

Women's perception on time was not lineal but personal. In that respect,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modern times. 'Women's way of knowing' and 'women's way of seeing, could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relative self' of Nancy Chodorow's and Carol Giligan's theory. And communication theory also emphasize the different conversation styles between men and women.

Her early short stories well reflect the politics of silence and exclusion in Korean society. It was changed to anti-communism, the hegemonical ideology in South Korean society, in her novel 'Dandelions on the Imgin River' written in 1962. Such a change i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politics of memory. It shows us the homology between novel and society.

key word : women's perception of war, women's perception of history, women's time, politics of memory, politics of silence and exclusion, relative self

▶ 위 논문은 8월 30일 투고 완료, 9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